

# 공동체는 천재의 구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김선욱

—  
송실대 철학과 교수  
swk@ssu.ac.kr

내가 사는 곳이 단지 먹고 잠자는 장소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것은 불과 몇 년에 불과하다. 2006년 가을, 마산에 있는 합포문화동인회의 초청을 받아 회원을 위한 강좌에서 강의를 했던 것이 내게는 공동체와 마을, 혹은 나의 삶의 터전에 대해 생각해본 첫 번째 계기였다. 그때가 내 나이 불혹의 중반을 이미 넘어서 즈음이었으니 늦어도 한참 늦은 때였다고 할 수 있다.

강연 끝난 뒤 뒤풀이 장소에서 성악가인 한 참석자가 이은상 시인의 시를 붙여 만든 ‘내 고향 남쪽 바다’를 불렀다. 유학시절 이 노래를 눈물겹게 듣고 또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 가슴이 찢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마산이 바로 이 노래의 고향이었으니 감회는 더욱 새로웠다.

다음날 나를 초대해 친구와 그의 ‘절친’들이 마산 관광을 시켜주었다. 마산 3·15의거 기념탑을 들렀다. 탑 주위를 구경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주위에 떨어진 쓰레기 줍는 것을 보았다. 자신이 있는 그 장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버려진 쓰레기 줍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장소뿐만 아니라 마산을 정말로 깊이 사랑했던 것이다.

## 등등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삶

거기에 사는 내 친구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외쳐진 ‘지역화’의 구호를 따라 서울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창원으로 내려왔다. 말뿐이었던 그 구호의 약발은 곧 사라졌고, 친구는 귀향한 지 일년 만에 귀향 결정을 후회했다. 하지만 친구의 선택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다. 거기서 병원을 열고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여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지금은 그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KTX 열차 안에서 나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깊이 생각해보았다.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는 분명했다. 하지만 어디서 살았는지는 내가 한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부산이지만 어린 시절 울산에서 잠시 살다가 목포로 옮겨 얼마를 산 뒤 다시 울산으로 왔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서울로 와서는 영등포, 화곡동, 둔촌동, 다시 화곡동, 잠실, 방이동, 그리고 의정부로 갔다가 상계동, 사당동, 중계동에서 살던 중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귀국 후에는 수원, 분당, 용인, 그리고 지금은 광

명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나의 삶은 한마디로 부평초와 같은 것이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물위를 등등 떠다니는 부평초 말이다. 그런 나에게 마산에서의 경험은 내게 고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에게 고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준 마산은 이후 내게 제2의 고향과 같았다. 단 한번의 방문으로 말이다.

이후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만들어 일년에 적어도 한번은 마산 혹은 창원을 방문해서 그 친구들을 만나곤 했었다. 갈 때마다 그곳 친구들의 환대는 오랜 고향동무의 환대와 다름이 없었다.

2010년 봄의 제주도 여행은 내게 마을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일깨워주었다. 당시 대동철학회라는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평화와 생명’이라는 주제를 걸고 제주대학교에서 논문발표회를 가졌다. 발표를 기획했던 충남대의 정 교수는 논문발표 하나를 위해 멀리 제주까지 오게 하기가 미안했는지 가족과 함께 여행 삼아 오라고 나를 꼬였다. 결국 그의 말에 넘어간 나는 논문을 쓰느라 진땀을 흘리기는 했어도 가족과 함께 5월의 제주여행을 할 수 있었다.

아들과 아내는 인터넷을 뒤져 여행 코스를 만들었고, 그 코스를 따라 제주도 동부지역을 렌터카로 돌다가 김용갑이라는 이름의 사진작가 갤러리를 찾게 되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그 날은 마침 그 작가가 작고한 지 다섯 해째 되는 날이었다. 갤러리 입구를 들어서자 기념 음악회가 열린다는 안내문을 읽을 수 있었다. 음악회까지 두어 시간 남아 있었기에 전시장을 천천히 살펴볼 시간은 넉넉했다. 많은 사진이 대체로 비슷한 포인트에서 찍혔으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놀라운 작품들이었다. 아내는 사진으로 이렇게 큰 감명을 받기는 처음이라고 감탄했다.

그곳에 붙어 있는 설명에 따르면 사진작가 김용

갑은 제주 출신이 아니라 충남 부여 출신이었다. 그런데 그는 여행 중 한라산 증터쫄 있는 ‘용눈이오름’에 반해 그만 그곳에 15년 남짓한 세월을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 불행히도 그는 루게릭병에 걸렸고, 투병 중에도 많은 사진을 남겨 놓고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작가의 주검은 화장되었고 뿔가루는 갤러리의 정원에 뿌려졌다고 했다. 그날 본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는데, 그 한쪽에 심어진 나무 한 그루가 각별해보였다. 그 앞에는 꽃바구니가 있었고 누가 두었는지 불 붙여진 담배 한가치가 나무 앞의 돌 위에 얹혀 있었다. 아마 그곳에 그의 뿔가루가 묻혔나 싶었다.

음악회는 도립교향악단 실내악 앙상블 팀의 연주와 성악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간에 작가와 깊은 교우관계를 맺었던 시인이 자신의 시를 읽는 순서가 있었다. 그 가운데 “나는 시로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그대는 사진으로 시를 썼던 게야”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다.

우연히 들르게 된 이 음악회 자리에서 나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까를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즉 김용갑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왜 그곳의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까. 그가 용눈이오름을 사랑했고 자기 몸을 바쳐 그 사랑을 사진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곳에서는 김용갑을 중심으로 하나의 기억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김용갑은 제주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그런 기억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출신이나 혈연관계가 이런 공동체 형성의 필수조건은 아님을 알려준다. 기억 공동체의 진정한 필수조건은 함께 기억할만한 일이고 기억하고픈 사람이다. 그런 일과 사람이 땅과 어우러지면 공동체와 고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기억 공동체의 필수조건

제주에서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나같이 도시로 모여든 사람은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돈이든 교육이든 뭔가 의 필요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긴 했으나 그곳은 뿌리내릴 곳이 아니어서 더 나은 곳, 더 좋은 것을 위해 언제든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서의 삶은 땅과는 관계가 없고, 기억은 모두 추상화되어 버린다. 이런 삶에는 땅에 뿌리내린 기억이 자랄 수가 없으며, 그런 땅에 나의 삶을 깊이 묻을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내 뼈를 묻겠다”는 말은 그런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이다.

지역공동체, 혹은 마을, 혹은 고향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흔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은 기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재들의 구상으로 현실화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삶으로 머무른 사람의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

마산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동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며 쏟는 정성이 필요하고, 제주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추억하고 기억할만한 일을 통해 혈연과 지연을 넘어 지역에 대한 넘치는 애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공동체는 시간과 지역민의 애정 어린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과 시간은 정치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자치라는 말로 수렴된다. 자치란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말이다. 영어로 ‘self-ruling’이라고 하면 주민이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규칙을 스스로 따른다는 말이 되고, ‘self-governing’이라고 하면 주민이 스스로의 삶을 잘 보살펴간다는 말이 된다. 어떤 것이든 결국 주민에게 스스로 그것을 할 시간과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그런 시간이 항상 건설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그

런 과정 없이 좋은 결과만 있을 수는 없다.

자치라는 말에 주목할 때 우리는 요새 한국사회에서 각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주장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좋은 사회를 위해서 덕이 있는 시민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민이 덕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민이 덕을 쌓을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덕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래전부터 말해왔듯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좋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가운데 미덕이 몸에 붙게 되어 비로소 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덕이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덕 있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덕 있는 시민을 많이 가지려면, 시민 자신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은 제도적으로도 시민이 자신의 지역에서 공동체를 가꾸고 보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모든 것을 제도로 통제하고 규정한 뒤 주어진 선택지에서의 선택만을 허용해서는 성숙한 공동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초중고교에서 제공하는 자율학습이 과연 얼마나 자율적이든가. 자율적으로 불참을 결정할 수 없는 자율학습은 자율적이지 않은 자율학습이다. 자율적이지 않은 자율학습은 자율학습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명목뿐인 자율과 자치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가나 행정가가 권력과 권한을 갖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도의 변화를 통해 현실의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 그런데

그들은 자칫하면 자신의 이상이 추상에 바탕을 둔 것임을 망각하기 쉽다. 그래서 자신의 이상이 로컬의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잊기 쉽다.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상은 항상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지만, 이상은 모두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고 개개인의 선호에 대해 잊기 쉽다. 이런 이상에 확신을 둔 정치가 혹은 행정가가 그 이상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강압하려한다면 그는 철인 왕 콤플렉스(the Philosopher King Complex)에 빠진 것이다.

철인 왕 콤플렉스라는 말은 플라톤의 정치사상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말이다. 플라톤은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왕이 된다면 그 사회는 이상적인 모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대해 이상을 강제하는 것이 된다면 거기에는 폭압과 폭력이 발생하게 되고, 개개인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독재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현실의 정치가나 행정가는 항상 자신이 철인 왕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그것은 추상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체적인 현실에 빠짐없이 적용될 수는 없다. 국가적 이상이 모든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모두 좋게 적용될 수는 없고, 서울 전역에 타당할 것 같은 정책이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는 해악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지역의 좋은 것은 지역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좋은 것은 지역민 스스로가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한다. 좋은 지방자치 제도는 지역민들이 스스로가 좋은 것을 고민하고 발견해 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도시의 거주자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부평 초처럼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삶을 살아오다가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 자들이다. 이 땅의 주거정책은 이제 이런 자들이 우연히 머무르게 된 그곳이 자신의 뼈를 묻게 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이유가 돈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게 해야 한다. 돈이 아닌 다른 가치가 그 공동체에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도롱뇽으로 상징이 되는 어떤 것이건, 따뜻한 인정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건 말이다.

마이클 샌델이 최근에 낸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핵심 주장은 “특정 재화가 시장의 대상이 되면 그 재화 속에 내재된 본래적인 선이 변질된다”는 것이다. 어떤 좋은 것에 돈이 개입되면 그 좋은 것은 다른 것으로 변질되고 만다.

마치고 보면 나를 부평초처럼 이곳저곳으로 떠돌게 만든 것은 바로 돈이다. 돈을 벌기 위해 부모님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와야 했고, 서울에서 살면서도 땅값, 아파트 값의 변동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녀야만 했다. 나도 결혼하여 전세 값, 아파트 값에 따라 계속 옮겨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결국 삶이 뿌리를 내려야 할 땅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돈이 땅에 개입하면서 삶은 떠돌이가 되어 버렸다.

내가 마산에서 경험한 일이나 제주에서 경험한 일은 돈과는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돈을 포기하고 지역에 머무르기를 결심한 것과 지역의 아름다움에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이 지역을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돈이 지역을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제도가 힘을 쓰고, 그런 제도의 방패 안에서 공동체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보듬어나갈 때 마을은 만들어지고 뼈를 묻을 수 있는 기억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